

숲 정 이

부활 제5주일

제 1독서 : 사도 6, 1-7

제 2독서 : 1베르 2, 4-9

복 음 : 요한 14, 1-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 6).

강 론

“양들에게 평화를 !”

박중신 신부 / 무주 천주교회

예비신자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성당에 나오게 된 동기 중에 마음의 평화를 위하여가 상당히 많다. 거창하게 영원한 생명이니 만고불변의 진리이니 하는 말보다 우선 가정과 사회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보자는 뜻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번째 인사는 “너희에게 평화를” 이었다.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무서워 떨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미사 때마다 영성체 전에 평화의 기도와 평화의 축복을 나눈다. 멍하게 미사하던 신자들도 이때만큼은 옆사람과 악수하고 웃고 인사하면서 분위기를 살린다. 성체를 영하기 전에 화해하고 기분 좋게 생명의 빵을 나누자는 얘기이겠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국적으로 75만명이 넘는 냉담자와 거주 불명자가 생겨났을까? 왜 그들은 성당을 멀리하고 미사참석을 꺼려하고 곤란하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겠지만, 첫째로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에 실망한 탓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던 바리새이파와 율법학자들의 태도가 교회 구성구석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지배하고 다스리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라고 간곡히 타이르셨지만 마치 신자들이 신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권위를 부리고 호령을 한다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로 성당의 분위기가이다. 극소수의 특징인들이 본당신부를 에워싸고 모든 일을 독점해서 설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어버려 재미가 없는 것이다. 좋은 봉사활동도 서로 분담해서 여럿이 골고루 나누는 맛이 있어야 전체 공동체의 지체들이 힘차게 살아 움직이지 않겠는가?

끝으로 강론 문제이다. 성서에 근거해서 일상생활과 깊이 연관된 살아 있는 힘찬 말씀이 신자들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가야 한다. 무거운 세상살이에 고생하는 양들이 강론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의욕을 되찾고 찢어진 마음을 달래고 잘못을 회개하며 무한한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된다면 ‘가기 싫은 성당’이 아니라 ‘가고 싶은 성당’이 되리라.

소 리

“행복한 가정”

한 중앙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어떤 어린이 상담실이 서울과 지방의 14개 국민학교 6학년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가 ‘지금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들은 행복한 이유에 대해 ‘식구들이 재미있게 살아서’라고 밝혀 많은 어린이들이 단란한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어린이의 대부분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앞일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런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거리가 넓어졌던 기억들을 가진 50대 이상 성인들의 어린 시절에 비겨본다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지기도 한다. 그만큼 나라 사정과 가정형편이 개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의 설문에서 서울의 28%, 지방의 18% 학생이 ‘불행하다’고 응답했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공부를 하지 못해 꾸중을 들어서’가 28%로 가장 많았음에도 유의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이유야 어떻든 적어도 전문학교는 졸업해야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체근할 수밖에 없다.

반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자란 뒤에는 어떻게 살 망정 하기 싫은 공부는 고역일 따름이다.

대학졸업장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나라 전체의 몫으로 돌리자. 지금과 같은 사회여건에서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청소년은 부모의 안타까운 입장을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숲정이 산책



성서교실 27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창세 22, 9-19)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에 이르러 묵묵히 제사드릴 준비를 한다. 이삭도 침묵 속에서 그의 일을 거들었울 것이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더미 위에 올려 놓는다. 이렇듯 상세한 묘사는 짧은 대화와 대조를 이루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고뇌를 보다 진하게 강조하는 저자의 의도와 억제된 감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아들을 막 찌르려는 순간 주의 천사가 그를 부른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천사가 2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천사가 부르는 소리에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을 멈추고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취한다.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았다.”고 하면서 아이에게서 칼을 치우도록 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갖는 존경과 효성과 애정을 모두 포함한 내적인 마음가짐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 중 가장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 자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려는 아브라함과 그의 마음만을 받아들이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아들 대신 덩불에 걸린 수양을 희생제물로 선정하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바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편에선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첫열매 이삭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정성된 번제의 제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아브라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함은 너무 고마워서 그 산의 이름을 야훼 이레, 곧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다.”라고 불렀다.

번제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장엄하게 갱신하신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불어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 이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표현은 예언자들의 신탁과 더불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덕분에 세상 만민이 덕을 입을 것이라는 구원의 보편성을 약속해주신다. 이로써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아브라함의 신앙 덕분에 가까이는 이삭이, 멀리는 이삭의 후손인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히브리인들의 만자식들이 구제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후손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봉헌하시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개업
공간 장식
커피 · 카페트 · 홈패션 · 바닥재
김학권(베드로)
김향초(크리스티나)
유진청하맨션(우전 성당 입구)
☎ 224-4128

신나는 피아노 교실
철저한 개인 지도 및 이론 지도
학년별 정원제 실시
김은영(블리나)
효자동 서원국교 길목
☎ 224-6284

소흥영 외과의원
레이저 치질 수술(무통)
통증 컴퓨터 치료실
소흥영(요한)
유인경(유리안나)
시청 앞
☎ 85-3668, 85-8120

잡간

“소말리아를 아시나요?”

소말리아는 이디오피아와 케냐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다. 8천리나 되는 긴 해안선이 있는 이 나라 인구의 2/3는 낙타와 영양을 기르면서 목초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들이다. 이 나라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이다. 특히 북부지방에서는 여름철(6-9월)에 흑서가 닥치면 사막으로 변해버린다. 이 소말리아가 지금 흉년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하루에 수천명씩 죽어가고 있다. 옆친데 옆친 격으로 부족간의 내전까지 있어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불타버려서 더욱 어려움이 많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신자들이 모은 성금 9천3백31만2천6백75원을 소말리아에 보냈고, 금년 교황님의 수단 방문시에 수단교회에 4천6백92만5천75원을 전달하시도록 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로마 본부의 요청에 따라 아프리카의 베닌,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세네갈, 수단, 자이레, 토고, 부르키나 화소 등지에 2억원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아프리카 전역의 기아민을 위하여 금년도 1차로 5억원을 목표로 성금을 접수하고 있는데, 성금은 모든 은행에서 지로번호 7604409로 보내면 된다. 또한 아프리카 참상을 수록한 교육용 비디오가 필요한 이들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02-279-9204)로 신청하면 이를 구할 수 있다.

6·25후반 이후 우리들이 굶주림에 떨 때,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다. 밀가루, 옥수수가루, 옷가지 등에 담긴 고마운 분들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 돈 1천원이면 소말리아에서는 1주일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마태오 25장)들이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교구 소식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5월17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제목-네키와 지노.

1. 교구장 시목방문 : 5월14일(금) 오전10시 주현동, 오후2시 신동.
2. 관구 성직자 체육대회 : 5월12일(수) 오전10시30분 광주가톨릭대학.
3. 축! 견진 : 5월16일(일) 오전10시30분 용머리 성당.
4. 박진량 신부 은경축 행사 : 5월10일(월) 오전10시30분 노송동 성당.
5. 천호 피정 안내 : 5월15일-16일 주제-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 강사-조철현 신부, 5월19일(수) 주제-하느님의 사람, 강사-김동준 신부, 문의 73-6600.
6. 중·고등부 교재 연수 : 5월15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7. 가톨릭 사진가회 사진강좌 : 5월15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회비-5,000원.
8.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5월16일(일) 오전7시 가톨릭센터.
9. 교구 울뜨레아 간사 회의 : 5월15일(토) 오후3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10. 교도소후원회 월례미사 : 5월10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11. 통일열사 조성만(요셉) 5주기 추모미사 : 5월14일(금) 오후7시 진동 성당.

※ 축! 영명 : 14일(성마티아) 범석규, 이성우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로로딸수도회 : 5월16일 오전9시 성바로 서원(0652)252-3398.
전교가르멜수녀회 : 5월16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쓰레기를 적게 가져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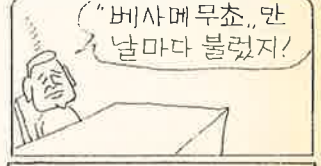
슈퍼마켓이나 시장 등에서 쓰레기를 적게 가져옵시다. 불필요한 포장지의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도록 합시다.

태화 신발 백화점
신사화·숙녀화 } 총판매장
아동화·특수화 }
김문식(베드로)
심점순(테레사)
풍남문←→송약국 사거리
☎ 82-3118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콜베)
팔달로변 덕진 성당 옆
☎ 72-2665
75-3533

패션 부업 가구
쑹파란들
영업사원 모집
박대식(요셉)
전일상호신용금고 앞
☎ 76-9346

요심이 (1028) 김경오



축! 은경
박진량(라우렌시오) 신부
사제서품 25주년
일시 : 1993. 5. 10(월)
오전 10시30분(미사)
오전 11시30분(축하식 및 축하연)
장소 : 천주교 노송동 교회
천주교 노송동 교회 신자 일동

오시어 함께 기뻐해주시시오!
장순례(수산나) 어머니
팔순 잔치
• 때 : 5월22일(토)오전11시-오후5시
• 곳 : 전주 코야호텔 무궁화실
• 모시는 사람들 : 문대현·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문세현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명자(마리아)
범덕배(디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 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 **축! 은경:** 신부님의 은경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월10일 전 10시30분(축하미사) 전 12시(축하식 및 축하연)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바랍니다.
1. **중·고교리교사 교재 연수:** 15~16일 후 2시 센터.
 2. **모임:** ①부녀회(11일 어머니미사 후)
②대건회(16일 장엄미사 후)
 3. **알림:** 혼인을 하실 분은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 강좌를 필히 수료하시고 신부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강좌: 매월 마지막 일요일 전 9시30 센터.
 4. **금주 청소:** 인후 2,3반, 차주 청소-인후 4,6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첫영성체 교리:** ①일시-5월15일 ②접수-사무실 ③대상-국 3~국6학년.
 2. **회합:** 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늘 오후 2시
③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④해설자 모임-오늘 공식미사 후
⑤안나회 喜도 반광: 13일 오전 9시30분 출발
⑥성우회-16일 공식미사 후
- 금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이갑규 씨 부부
봉헌-조종업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오교섭, 독서-장세환 씨 부부
봉헌-김응식 씨 부부.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심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한 동 옥

- ◎ **5월은 성모 성월:** 성모님의 믿음과 겸손과 사랑을... 메미사 30분 전 묵주기도 바칩.
1. ①장년회-15일(토) ②성가정회, 청년회-다음주일.
 2. 성소 후원 저급동 속히 내주세요.
 3. 제대꽃 봉헌해 주세요.
 4. 성소 후원 회원 접수: 사무실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5. 성직자 체전: 12일(수)-광주 가톨릭 대학.
 6. 주일미사 참여와 정성스런 기도와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7.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오귀남
봉헌-안정만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342,160원 □ 교무금: 497,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증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부활 제 5주일!** (5월은 성모 성월!)
1. 프란치스코 3회: 5월9일(오늘) 오후 2시.
 2. 자모회: 5월12일(수) 오전 10시30분.
 3. 성심회: 5월13일(목) 오후 2시.
 4. 울뜨레야: 5월12일(수) 오후 7시30분.
 5. 전례부: 5월20일(목) 오후 8시.
 6. 첫영성체 교리: 5월11일(화)~6월11일(금) 매주 화, 수, 목, 금
요일 오후 5시, 첫모임(5월11일) 부모님중 한 분 꼭 참석바람.
 7. 성지 순례: 5월28일(금) 서울 절두산 성지.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 **부활 제 5주일**
1. 견진교리: 5월11일~13일.
 2. 가정 방문: 5월11일~12일.
 3. 사목회: 5월14일.
 4. 성소 후원회 회원용 모집합니다.
 5. 모집: 신앙 체험담 쓰기 공모-홍보부
 6. 구역, 반정모임: 14일(어머니미사 후)
 7. 견진성사(16일) 견진성사 받으실 분과 대부·대모는 미사 30분 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청소 봉사: 3구역3반, 4반.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에비자 교리 개강식(공식미사 후)
③일치의 모후Cu(후 2시) ④사목회(후 8시)-사목회 임원, 단
계장 모두 참석요망.
2. **사라회:** 11일 오전 10시. 3. **돈보스코회:** 12일 오후 7시30분.
4. **구역반장 회의:** 13일 오전 11시.
5. **빼에따회:** 15일 오전 10시.
6. **중·고 교재 연수:** 15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7. **차주:** 바네의 성모 꾸리아(오후 2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 A 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감 상 근

1. **여성 L.M 전단원 1일피정:** 19일 천호, 회비: 5,000원.
2. **첫영성체 교리:** 11일(화)부터 후 5시30분~7시30분.
3. **교도소 후원회 월례미사:** 10일 전 10시30분 썬타 3층.
4. **사목회 상임 위원회:** 13일 저녁 8시, 오수환 우성107동 407호.
5. **평신도 강론:** 다음주일 박종수(루카) 총부
6. **중·고 교리교재 연수:** 15일 후 2시 가톨릭 썬타 3층
7. **회의:** 자모회-12일 어머니미사 후 교사의 날 준비, 첫영성체
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국민학교 3학년 이상.
8. **가정방문:** 주공301동(11구역1반) 13일 전 10시, 우성랜선 새전
일자 대상 14일 전 9시.
9. **가정 축성미사:** 101동 907호 11일 저녁 8시 이기범씨.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자모회:** 오늘 미사 후.
2. **반모임:** 11일(화) 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2.
12일(수) 오전-광화, 오후-화산2(A) 비사별. 13일(목) 오전
-오성은하1, 오후-오성은하2.
3. **울뜨레야:** 다음주일 미사 후.
4. **첫영성체 교리:** 10일(월)~22일(토) 오후 5시(국민학교 3학년
이상)
5. **대건회:** 13일(목) 오후 8시-이광석(토마스)
금주 전례: 최정순, 독서·봉헌-김정애, 박태수.
차주 전례: 정 걸, 독서·봉헌-김순이, 이기남.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정 삼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실

- ◎ **오늘은 예수 부활 제 5주일입니다.**
1. **구역 봉사자 모임:** 12일(수) 오전 10시30분. 2. **성지 순례:** 23
일(일) 승천 대축일 야외미사. 3. **성모의 밤 행사:** 5월29일 오후
8시30분. 성모 성월동안 제대 앞 성모님께 조 봉헌을 실시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수녀님에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4. **여성42차
푸르실리스타 축하합니다:** 박공순(율리엣) 설태순(유스터
나) * 성소 후원회에 가입합니다. 사제 양성 후원에 적극 참여
합니다. * 예비자 인도에 협조하여 전교 사명을 다합니다. *
구역 반장님-구역 모임 일정과 구역미사 신청을 미리하여 주
십시오. 미사 안내: 금주-능하신 모후, 은총의 모후, 차주-
승리, 증거자들의 모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모임 안내:** ①울뜨레야-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10일(월)
오전 10시 ③자모, 성모, 성심회-14일(금) 10시미사 후 ④바
자회 준비 회의-저녁미사 후. 2. **바자회에 의류 전자 서화류
기증하실 분은 다음주일부터 본당에 접수바랍니다.** 3. **첫영성체
교리:** 11일(화) 오후 5시-6월10일. 4. **성소 후원회 회원용 모
집합니다.**
차주 모임: 바자회 준비 모임, 제대회.
신축헌금 봉헌액: 210,000원
금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이제철 ②정준섭
봉헌안내-양제훈 부부, 이태연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향림, 독서①교영표 ②박춘하
봉헌안내-문성재 부부, 송우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28,520원 □ 교무금: 2,049,000원

*** 수요성서교실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장소-전동성당 교육관. 문의-교구청 사목국**